

## 경희대학교 졸업영화 단편 <시절인연> 소개

### 1. 기획의도

시절인연이란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붙잡으려 해도, 떼어내려 해도, 그것이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이죠. 하지만 반대로, 시절인연이란 늘 시기에 또는 그 시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니, 너무 오래 미련두지 않고 나아가자는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 2. 줄거리

원데이 클래스 겸 작업실을 운영하던 '유정'. 그녀는 계속되는 전시회 준비의 무산으로 작업실을 정리하고자 마음 먹는다. 유정은 아쉬운 마음에 이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초상화 이벤트를 준비하고, 손님으로 방문한 여자에게서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느낀다. 여자와의 대화 사이 사이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는 유정. 마침내 여자가 자신이 학창시절 동경하던 고등학교 동창 '석'임을 알아차린다.

### 3. 인물 소개

#### 1) 주연

유정(18→28, 여) : 공부와 미술 사이의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 자신이 애매한 성격과 성적, 개성을 가졌음을 알고 그와 반대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 하는 친구 석을 동경한다. 오기와 자존심이 강하지만 어딘가 우유부단하여 모호하고 복잡한 캐릭터성을 가진 인물. 28살이 된 지금까지 미련이란 이름으로 끌어 안아 온 것들이 많다.

석(18→28, 여) :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이곳 저곳 전학을 다니는 일이 많은 고등학교 2학년생. 말끔한 인상에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해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만큼 비밀도 많고 거짓도 많다. 사람에게 쉬이 마음을 열지 않으며,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가끔은 무례하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캐릭터. 여전히 신비스런 분위기를 풍긴다.

#### 2) 조연

연우(18, 여) : 개성 넘치고 활발한 고등학교 2학년생. 쾌활한 것만 같지만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고 성숙하다.